

## 택시·버스요금 '도미노 인상'... 서민부담 가중

서울부산시등택시요금천원↑  
경기도도내달부터천원인상  
시내버스·도시철도인상가닥  
지자체 부담재정지원금 '눈덩이'

전국 곳곳에서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수년간 보류됐던 택시, 버스 등 교통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실질적인 요금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

어질 전망이다. 전기·가스비 인상과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대구와 울산시는 지난 1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2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4천8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1천원 상승했다.

부산에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랐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6천원에서 1천500원 오른 7천500원

이 적용된다.

경남은 창원 등 시 단위 택시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4천원까지 인상했고, 경기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내달 1일부터 1천원 올린다.

대전과 광주에서도 내달부터 택시요금이 인상 조정된다.

전북도는 물가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시도의 택시비는 시간 요금과 거리 요금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르게 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초 버스 요금을 4년 만에 기존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좌석버스는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서울시의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은 8~9월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 버스요금 150원을 일단 올리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조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운송업계는 요금 인상과 관련 해서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도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족 자금도 약 1조 6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종합/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 용산전자상가, 2차실리콘밸리로 육성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연계 AI·ICT 기반공간 등 조성 추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21년 용산정비창 부지와 용산전자상가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과거 용산전자상가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할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성에 주목해 이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AI·ICT 기반의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 용산메타-밸리(Meta-Valley)로 설정하고 ▲산업 혁신·창업 공간 구축 ▲열린 녹지네트워크 조성 ▲도심형 복합 주거 공급 ▲용역을 인센티브제공 등의 세부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으로 구축한다.

신산업 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한다. 이 경우 전자상가 일대를 개발할 때 공공기여 기준은 평균 27%에서 18%로 줄어든다.

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천% 이상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시는 신속한 사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 전략에 부합하는 주민 제안이 있으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전자상가가 쇠퇴하면서 주변 지역도 침체했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수지 상부는 공원화해 공공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개공지와 건축물 저층부는 입체 녹지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녹지율 50% 이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미래형 도심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용 용적률의 50% 이하로 허용한다. 주거시설 중 일정 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일정 부분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특별공급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창의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천% 이상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시는 신속한 사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 전략에 부합하는 주민 제안이 있으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전자상가가 쇠퇴하면서 주변 지역도 침체했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장사 준비하는 상인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상인이 진열된 수산물들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나라살림 45조 적자... 국가채무 1073조 육박

4월기준 정부 총수입 211조8천억  
1년 전 동기 대비 34조1천억 감소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달새 8조6천억 ↓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천73조 원에 나라살림 적자는 45조 원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11조8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4조1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총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세수입이 134조 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조9천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1천

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천억 원으로 추산한다.

세외수입은 10조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천억 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67조4천억 원으로 3조6천억 원 증가했다.

4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40조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천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천억 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7조4천억 원 더 늘었지만 한 달 전(64조 원)과 비교해보

면 8조6천억 원 개선됐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 원)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다.

4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72조7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9조1천억 원 증가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39조 2천억 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38조1천억 원, 외평채 잔액이 8천억 원 늘었다.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인 1천100조3천억 원까지는 약 30조 원을 남기고 있다.

5월 중 국고채 시장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 규모는 8조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를 기록, 3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 이신우기자 kjsuw@jeonmae.co.kr

## 비영리 민간단체 2천800곳 '서류만 존재'... 활동실적 全無

행안부, 23년만에 1만1195곳 조사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1만1천 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천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등록 단체 1만5천577개 가운데 대정 등 4개 시도에 등록된 4천382개는 제외하고 1만1천 195개를 조사했다.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천734곳이며, 지자체 등록 단체는 9천461곳이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만1천195곳 가운데 7천 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

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천771곳(33.7%)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2천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제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다.

말소되는 단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338곳이며 시·도 등록 단체는 2천471곳이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 원 미만 수준이다.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변화의 중심 기획의 경기

배우고 싶던 거, 보고 싶었던 세상, 진짜 해 보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 “너하고 싶은 거 다해”

경기청년 캠퍼 프로그램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www.cheerup31.com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을 위해, 경기 Do.

단신브리핑

제2차 인성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기도는 미래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3대 핵심전략인 역량에 의한 인성교육, 시민을 위한 인성교육, 경력의 인성교육으로 구성됐다. 또 인성교육 실천 강사 양성,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지식(G-SEEK) 플랫폼 공유, 소외계층 인성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특성화, 인성교육성과관리 체계 개발, 생태 친화적 인성교육 개발로 이뤄진 6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시군에 확대·보급해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가 실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36일만에 구제역 특별방역 해제

충북도 내 구제역 방역대가 발생 36일만에 모두 해제됐다. 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청주시 구제역 방역대 3km 이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임상·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청주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난달 18일 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자 방역대 내 농가 215곳과 발생농가 9곳을 검사했고,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과 우수사례는 새로운 방역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포트홀 발생 대비 기동대응반 재가동

경기 수원시가 포트홀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기동대응반을 재가동한다. 시는 내달 28일까지 59명으로 구성된 포트홀 24시간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 도로 950km를 대상으로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24시간 안에 보수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에 대비로는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 침수우려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로 배수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수원/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경북도, 첨단제품 제조 몰투몰 핵심부품산업 육성

'하이테크 몰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사업' 선정...194억 투입 디지털 기반 협업 플랫폼 구축·전문인력 양성·상용화 등 추진

경북도가 첨단제품 제조를 위한 몰투몰 장비 핵심부품산업 육성에 나선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이테크 몰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도는 구미국가산업4단지(확장단지) 내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94억 원을 투입해 ▲하이테크 몰 첨단화 지원센터 구축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 ▲디지털 기반 협업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제품 상용화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 협업 플랫폼은 몰제조업체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기 전 몰의 성능을 미리 모의실험해 최고 성능의 몰 설계 도면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성능 점검도 가능해져 기업에서는 제품 신뢰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하이테크 몰 세계시장은 2020년 108억 달러에서 연평균 12% 성장해 2024년에는 1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되며 국내 시장은 2020년 5300억 원에서 연평균 20% 성장해 2024년 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분야 제조장비 부품은 장비의 성능, 신뢰성, 가격 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몰 제조업체들이 개발된 부품을 실증하거나 장비 성능 검정을 하고 싶어도 몰 전문

지원기관이 없어 기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신산업 제조 기업이 많아 제조장비 부품의 내재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개과 연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해 국내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 기념행사 1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연평해전 전승 24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 675 일대 148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연내 계획 입안 절차 추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가 25층 1480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목골산 경사지를 따라 형성돼 주택 노후화, 열악한 주차 여건 등으로 인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난 2011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해제됐다. 이후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로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후보

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는 '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도심 속 녹색마을'로 거듭날 예정으로 ▲사업의 실현성과 주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적정밀도·높이계획 수립 ▲경사지 조건을 활용한 지형순응형 열린 단지 조성 ▲주변 지역을 이어주는 유기적인 동선 체계 마련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4대 기획원칙으로 마련했다. 대상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기획안에서는 최고 25층으로 높이를 제한했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할 경우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순응형 단지를 계획하고 불가피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주동의 저층부나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한다. 남측 난향3길은 주요 진출입로로 계획하고 인근 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로 확장·조성한다. 시는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형찬기자 lhmhc@jeonmae.co.kr

부산시, 동아프리카 물류거점 넓힌다

부산시가 동아프리카 허브도시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와 전방위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15일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박형준 시장, 알버트 존 살라밀라 다르에스살람 지방청장, 오마리 사이드 쿵빌라모토 다르에스살람 시 이드 쿵빌라모토 다르에스살람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르에스살람시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에 위치한 탄자니아

불라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거론됐다. 이에 지난 2월 시 실무 대표단이 탄자니아를 직접 방문해 탄자니아 지방청장을 만나 자매도시 협정 체결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시는 이번 자매도시 협정을 통해 동아프리카 주요 관문도시인 다르에스살람시와 항만, 물류, 수산,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교통, 폐기물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인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시와 자매도시 협정 체결 항만·물류 등 다양한분야 상호교류·기술협력도모

제1의 항만도시이자 행정과 무역 중심 도시다. 특히 인도양의 중심 항구로서 탄자니아 운송 체계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산과 지리적 여건도 유사하다. 탄자니아는 천혜의 자연조건에 동부 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거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크다. 앞서 이번 자매도시 협정은 지난해 4월 박형준 시장과 물라물라 외 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최초로 논의됐으며 같은 해 11월 안젤라 마

교류 사업 및 관광, 도시녹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협력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도시외교 지평이 한층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협정 체결 이후 부산을 찾은 다르에스살람시 관계자들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개최한다. 다르에스살람 시 관계자들과 양 도시 간의 실질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이재열기자

전국매일신문 캠페인 - 일상생활 속 환경을 살리는 습관.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 함께 동참해 주세요! 탄소중립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2050년까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이용, 나무심기.

# 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日, 기준치까지 정화 방침”

후쿠시마 방류 앞두고 일일브리핑  
국무 1차장 “방류 시운전 예의주시”  
해수부 “국내 연안해역 방사능도  
방류 전과 유사…국내 수산물 안전”

정부는 15일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할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부터 일일 브리핑을 하고 오염수 방류 안전 검증 관련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박 1차장은 먼저 브리핑 배경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승필프 정상 작동, 이상 상황 발생 시 방출 차단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26일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지시찰과 관련해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1차장은 최근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천 433베크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천 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

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천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리 수산물 검사 항목에 반감기가 1천570만 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홍해인기자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칠곡 매원마을’ 전국 최초 마을단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경북도는 ‘칠곡 매원마을’이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도가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제10차)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칠곡 매원마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했다.

칠곡 매원마을은 17세기 광주이씨 석담 이윤우(1569-1634)가 아들 이도장(1603-1644)을 데리고 함께 이거한 후, 이도장의 차남 이원록(1629-1688)이 뿌리를 내려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동족마을 중 한 곳이다.

마을 배치는 주산이 되는 뒷산의 낮

은 산자락을 따라 좌우로 낮고 길게 펼쳐진 형식의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

이는 후손들이 중앙부 중매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상매와 서매로 분과해가

경북도, 독특한 경관 구성 보이는 마을 배치·전개·형성  
역사성·시대성 갖춘 다양한 민속적 요소 가치 인정받아

면서 마을 영역이 좌우로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마을 주택은 분과계보, 입향순서, 신분 관계에 따라 대지 위치와 규모 및 형태, 출입 동선에서 뚜렷한 위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상매와 서매 지역의 주택들 역시 규모와 채의 분화 및 구성, 진입 동선, 좌향 등이 서로 달라 분과 후손 간, 시기별 주거 형태의 차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마을 곳곳에는 다양한 민속적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소나무 밭(동술밭)’은 마을 서쪽 경계(풍수지리상 우백호에 해당)의 지형을 보강하기 위한 비보수로, 풍수지

리적으로 이상적인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전통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 오늘날에도 동제를 통해 마을의 전통을 계승해오는 등 지난 400여 년간 보존되어온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칠곡 매원마을은 근·현대기를 지나오면서 이뤄진 마을 영역의 확장 및 생활방식 등의 변화 속에서 다른 영남지방의 동족마을과 구별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옥 및 재실, 서당 등을 비롯해 마을 옛길, 문중소유의 문전옥답, 옛터 등 역사성과 시대성을 갖춘 다양한 민속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  
경북/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 강원 접경지역 상생발전협, 주요현안 사업 논의

군사규제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대체시설 관리주체 마련 등 4개 중점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5일 ‘제7차 도내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국방부와 도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다.

이날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박승훈 군사시설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본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호구역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대체시설의 관리주체 마련 등 총 4개 안건을 중점 논의했으며 회의 이후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도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춘천/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에서 우리가족 오감 힐링하자! 😊

2023산청세계 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World Traditional Medicine & Anti-aging EXPO in Sancheong, KOREA 2023

9.15. ▶ 10.19.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

엑스포 한방! 새기 한방! 유래 한방!

인생 한방!

산청서 건강식 먹고 몸매 좋은 산청약초밥상

산청서 자연을 듣고 기체험장에서 기력 뽐뽐

산청서 엑스포 보고 콘서트 보며 소리 지르고

산청서 이색체험 하고 우리아이, 산청에선 한의사

산청서 꽃내음 맡고 꽃들이 만발한 산청 엑스포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경상남도 GYEONGNAM

산청군 Sancheong-gun

엑스포 공식홈페이지 <http://sancheong-expo.or.kr>

### 與, 野의원 중국방문에 “원정 조공까지”

국민의힘은 15일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고압적 발언이 논란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안방 조공에 이어 원정 조공에 나선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방중인데 비용을 중국이 낸다고 한다”며 “뇌물 위유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5명은 지난 12

일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날 도종환 의원 등 7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김대표는 “민주당은 비용이 얼마인지와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심 대사가 내정 간섭 수준의 발언을 쏟아낼 때 아무런 제지 없이 옆자리에 앉았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하는 행태”라며 “외교적 자중수로 나라 망신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자신들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기는커

녕 오히려 정신 승리에 적반하장 태도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중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꾸짖어도 부족할 때 중국이 낸 비용으로 중국으로 향한 국회의원들이 우리 의원이 맞기는 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하이밍 뒤통수를 맞았다며 자기 무능을 고백한 민주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또 어떤 뒤통수를 맞고 돌아올지 걱정과 한숨이 커질 뿐”이라고 비꼬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원 외교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절하나 명분

“중국 돈 받고 나라 팔아먹는 뇌물 위유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심 대사-이재명 자해 만찬” 연장선  
 중국 건너가 굴욕외교 펼칠 것인가?

으로나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외교 참사를 벌여놓고 도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자 당 의원들을 중국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안방에서 굴욕외교를 펼치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건너가 굴욕외교를 펼칠 것인가”라며 “말이 문화교류인지 실제로는 심 대사의 관저에서 있었던 자해 만찬의 연장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중국방문은 헛꿈에 불과했다”며 “저런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하대하고 북핵 억제 골든타임도 놓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김기현 “내년 총선 ‘비정상’의 정상화’... 외연확장 주력”

#### 국회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검사공천? 없다...능력중심 할 것”  
 “지도부 힘줄 풀어줄까” 질문에  
 “가장유효 적절한시기에 선당후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총선에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대통령실이나 내각 등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받는 ‘검사 공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의회 권력 지형을 ‘여대야소’로 바꿔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훈기자

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 복안을 묻는 말에 “도깨비 방망이식 비결, 이런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사이다식 정치’로 일시적 눈길을 해서 정치하는 건 금방 들뜨는다”며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속성시키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힘’으로 출마하거나 불출마 결단을 내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유효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선당후사(先黨後私)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그 과정에서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00일이 당내 혼란을 극복해 당을 안정화하는 데 방점을 둔 시

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 지역에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며 “우리 당의 취약지역, 취약세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보다 각별하게 챙기고, 더 자주 만나 뵙고 허심탄회한 바다 민심을 들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野, 고민정과 설전 한총리에 “불성실·오만...경질해야”

####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맹비난

“한일 ‘오염수 방류’ 이면합의 의심”  
 “중대사, 위안스카이떠올라”尹도비판  
 “자해적·자기비하적 발언”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준에 맞다면 반복적으로라도 마실 수 있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난의 타깃이 됐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장은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한 총리는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작성 문건에 대한 고민정 최고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이유가 없다’ ‘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민기기자

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것도 거세게 비판하며 총리 경질까지 요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례 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라”며 “한 총리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라고 답변하는 총리는 역사상 처음 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한 총리가 그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에 빗댄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초청 만찬에서 한국에 대해 고압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심 대사를 향해 여권의 비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심 대사를 보면 위안스카이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안스카이는 국내 내정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인데, 심 대사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느냐”며 “그야말로 자해적인, 자기비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 중국 대사를 만난 것을 위안스카이와 비교한 것은 집권 여당이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과 국격을 포기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 민주 의원 7명 추가 방중... “中대사 한마디에 교류 끊기면 안돼”

“이런 때 만나야...폭격 걸맞게 행동”  
 “무능한 정부 대신 소통채널 노력”

심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민주당 도종환·김철민·박정·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의원 등 7명은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방중단 부단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도 “주한 중국대사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그런 발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외교는 정치적 흑백 논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정을 강행하게 됐다”며 “정치적 만남은 거의 없고, 철저히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혹시 중국 측에서 대

만민국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 제기된다면,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폭격에 걸맞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방중단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한중 간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3박 4일동안 중국과 티베트를 찾는다. 중국 정부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비용은 모두 중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 화학으로 이로워지는 세상

롯데화학 가족이 함께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더 편한 일상으로  
자연에게는 더 착한 환경으로  
사람과 자연을 모두 이롭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 ● ● 롯데 화학 가족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롯데케미칼 ● 롯데정밀화학 ● LOTTE CHEMICAL USA ● LOTTE CHEMICAL TITAN

1 롯데케미칼 2 롯데정밀화학 3 LOTTE CHEMICAL USA 4 LOTTE CHEMICAL TITAN



# 용산구, 청년 일자리·주거·문화·참여 정책 적극 추진한다

청년지음 청년네트워크

서울 용산구가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2년 용산구 청년인구(만 19~39세) 비율은 31.95%로 서울시 평균인 29.85%를 웃돈다. 2019년 비율인 30%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청년층 비율은 높아진 것이다.

이는 2021년 2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 용산베르디오피스(1086세대), 2022년 5월 1호선 남영역 인근 용산 원효 루미니(752세대)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청년층 유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는 2030세대 삶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을 세우고 본격 추진 중에 있다.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연말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77억 2700만 원을 투입한다. 주요 내용은 ▲청년 친화형 일자리 창출 및 환경 조성 9개 사업, 49억 9000만 원 ▲청년 복지·주거 생활지원 6개 사업, 21억 6900만 원 ▲청년 건강·문화·활동지원 6개 사업, 1억 5700만 원 ▲청년 참여·기반 구축 4개 사업, 4억 9200만 원 등이다.

### ●청년 친화형 일자리 창출 및 환경 조성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어르신청소년과 내 청년지원팀을 일자리정책

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변경했다. 청년들에게 취업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 맞춤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취업특강·취업박람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청년기업 융자지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과 박물관 전문가 양성사업,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과정 추진 등이다.

특히 올해 첫 도입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구비 9400만 원을 투입,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15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시 3개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기업 융자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40억 원이다. 0.8% 저금리를 적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전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 ●청년 복지·주거 생활 지원

복지·주거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월부터 시작한 부동산 중개 피해 예방 청년 맞춤형 안심케어 서비스다. 주거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

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용산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시에 남기면 부동산정보와 소속 주무관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생활지원 분야로는 청년층 경제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학생 장학사업 등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만 19~34세)들을 돕는 사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 ●청년 건강·문화 활동 지원

문화 활동 분야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 청년 1인가구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청년&어르신 멘토링 프로젝트,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특화사업 등이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인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잡학사전도 인기가 많다. 지난해 마음챙김 프로그램, 1인가구지만도 리얼하다, '혼살'의 기술 등을 운영한 바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까지 3300만 원을 투입, 건강과 실

생활 정보 2개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지원사업, 청년마음검진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마음검진 사업은 올해 6월 첫 시작하는 사업이다. 스크리닝을 통해 대상 청년이 우울요인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심리상담사와 1:1로 연결해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 ●청년 참여 기반 구축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민관이 함께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등을 추진한다.

구는 2019년 '용산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 전국 최대 규모로 청년정책자문단(215명)을 구성·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는 기존 자문단을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변경, 인원을 줄이고 내실화를 꾀했다.

2020년 문을 연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17)은 청년활동 거점 공간으로 거버넌스 활성화, 정보공유 플랫폼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북카페, 힐링룸, 미니영화관 등을 갖췄으며 청년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청년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는 청년동아리 활동 공모 사업을 통해 4개 모임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청년들의 관심 활동 및 교류를 지원한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연말까지 4개 분야 25개 사업에 77억 원 투입  
청년친화형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용산청년지음 입구



청년지음공유부락에서 열린 1인가구요리



용산구 청년기업융자지원상담

## 구들나라 흙집이 사람을 살린다

EBS 극한직업 방영(여주 장작아궁이왕도방) 2015.2.11 (본사 청우산업 개발자)

### 철저한 지지는 장작구들방 전국 산과 밭에 있는 컨테이너를 교체해드립니다.

**구들(수송용)**

우리의 구들을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개발 경험과, 내구성, 고단열, 황토, 일라이트 적용

**왕토구들방 컨테이너**

[안되면 되게아라]산, 밭, 들에 방치된 컨테이너를 생존(호수) 건축으로 시공

**왕토방 카라반 (캠핑카)**

1일 연료사용 예) 참나무 장작 길이50cm x 폭20cm 3개면 중일 따뜻함

겨울 좋은 곳에서 숙박?? 자고 나면 어떨까요??  
→ 왕토방 카라반은 습도제거, 열-열 지지는 구들방 기능으로 피로가 없습니다.

**구들나라** www.hwangtotech.co.kr 010-5277-5255 / 031-882-8278

http://www.udcenter.org

## 누구나 차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

### 여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여주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자유로운 인간'을 지향합니다.

☎ 031-882-0787

여주시 ATAC 경기 여주시 Movable/Accessible/Usable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Amenity Technical Assistance Center For The Disabled, Etc.



###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개최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27~28일 이틀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창업 준비절차, 상권 입지 분석 및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자금 지원 제도, 노무·세무정보, 마케팅 전략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홍보까지 창업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27일, 28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신내동에 위치한 중앙창업지원센터 열린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예비창업자나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구정 이모저모

#### 챗GPT로 배우는 취업특강 열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진 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에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자립준비청년 전문 멘토 사업 실시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정서적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멘토 사업 '연대기'를 15일 시작했다.

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맞는 일대일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와 멘티 매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청년의 활동육구 및 진로계획, 대화하고 싶은 멘토의 성별과 연령 등을 세세하게 조사한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렇게 매칭된 총 17개 팀은 지난달 25일 첫 만남을 가졌으며 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함께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6개월간 최소 4회 이상 만나고, 월 2회 이상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한다.

#### 뮤지컬 프로그램 본격 운영

서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은 구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2023년 금천문화재단 뮤지컬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이달 7일~29일에는 '뮤지컬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공연 연계 워크숍을 운영하는 여름 특화프로그램이다.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보호자까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림책을 기반으로 우리 가족만의 뮤지컬을 만드는 창작 프로그램(8~9월), 청년 1인 가구 대상 강연 및 교육(9월), 5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뮤지컬 통합 교육(10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힐링 걷기 운동교실 참가자 모집

서울 강서구는 오는 29일 강서평생학습관과 증미산 둘레길에서 진행되는 힐링 걷기 운동교실'의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운동교실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걷기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강서평생학습관에서 올바른 걷기 자세와 효과를 설명하고 걷기 속도 조절법, 상완발 걷기법 등을 알려준다. 이어 증미산 둘레길을 직접 걸어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신청자에 한해 체성분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강서구 주민 또는 지역 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 조기 착공 추진...전략환경영향평가 원안 통과 협조 요청

오연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1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하부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청장은 우이신설연장선(우이-방학) 조기착공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지연에 대한 도봉구 민의를 전달하고 2024년 착공을 위해 예산안 반영 및 설계·시공 일괄시공 방식인 턴키 방식 등을 제안·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 시행됐던 수요예측제조사는 예비타당성조

### 송파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20일 '송파구 보훈가족 한마당'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갑석)는 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3 호국보훈의 달 기념 송파구 보훈가족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구 보훈회원 운영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 약 9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군악대의 군가 연주, 퓨전국악, 송파구립심리해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에서는 6·25전쟁 당시 훈장을 수여 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6·25무공수훈자와 유족에게 화랑무공

### 영등포구, 늘푸름학교 첫 동창회 '뭉클'

편지글 낭독·장기자랑·합창 등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희권)는 늘푸름학교가 전날 별과 대강당에서 첫 번째 '선·후배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16년 늘푸름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졸업생, 재학생 간 소통·화합의 자리다. 이날 늘푸름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은 한 자리에 모여 만학도의 애환, 수학여행 등 공감을 형성하고 선·후배 간 유대감을 다졌다.

행사에는 졸업생 90명, 재학생 30명, 교·강사 15명 총 135명이 참석했다. 환영사, 편지글 낭독, 졸업생 소감 발표와 각종 체험,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동창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 70세로, 늘푸름학교 선·후배

늘푸름학교가개교 이후 첫 동창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 제공)

### 동작구, 주말·휴일에도 '도로·교통·건설행정 기동반' 운영

분야별 공무원 30명으로 구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10일 휴일에도 도로·교통 분야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교통·건설행정 기동반'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기동반은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토요일과 공휴일 오

전 9시~오후 6시까지 현장·재택근무를 하며 응급복구 등 각종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보도 침하 ▲도로 동공 ▲지하보·차도 시설물 파손 ▲보도에 쌓인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치다.

구는 과거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자 부재로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다. 이

에 구는 평일에도 상시 순찰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해 당일 정비하도록 했으며 시범운영 후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해 8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구는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공유하기 위해 SNS 활용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고체계도 정비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선 우려 등을 전달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하부통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우이신설 연장선이 공익사업인 점, 1400억 원 이상 공사비 증가 및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공원 지하통과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후 총사업비 협상을 거쳐 연말쯤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예측하고 있으며,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할 예정이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은 15년간 지연돼왔으나



오연석 도봉구청장(오른쪽)이 우이신설연장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원안통과를 위해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실시했다. (도봉구 제공)

현장 행정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 해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 광진구 구의유수지 쉼터, 시니어파크로 변신

시니어놀이터·헬스파크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의강변로 10에 소재한 구의유수지 쉼터를 '시니어파크'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강변나들목 입구에 있는 구의유수지 쉼터를 어르신들이 안전한 신체활동과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니어파크로 탈바꿈시켰다. 반경 500m 이내에 경로당 6곳이 위치해 있어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유수지 시니어파크는 시니어놀이터, 헬스파크,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움직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어르신들의 유연성과 균형감각 강화,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시니어놀이터에 시니어 전용 운동기구 7종을 설치했으며, 헬스파크에는 근력, 유산소 운동기구 9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더 활발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 양천구, IoT 기반 공유주차면 신설

실시간 주차정보 확인 가능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제)는 공유주차 130면에 실시간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연 말까지 추가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연말까지 4600여만 원을 투입해 거주자우선주차장 130개 공유면에 신규센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치 완료된 916면을 포함하면

올해 안에 총 1046면의 스마트 공유주차면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면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하면 스마트폰 공유주차 관련 앱으로 실시간 주차가능 면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센서는 전화 한 통으로 주차 이용 등록이 가능한 'ARS 공유주차면'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 은평구 '수국사 나눔의 노래' 17일 개최

오후 7시 치타·윤성등 인기가수 출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도심 속 전통사찰 수국사에서 오는 17일 오후 7시 제9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가 주관하고 구가 후원하는 축제로, 수국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불교음악, 국악, 대중가수 공연, 나눔 행사 등이 펼쳐진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국사는 먼저 저비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은평구민장학재단에 600만원,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구산동주민센터에 400만 원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음악회에서는 수국사합창단, 상월청년합창단, 뮤지컬, 비오이 등 다양한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마무리 공연에서는 치타, 윤성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며 수국사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임형찬기자 ihmch@jeonmae.co.kr



Yongsan District Council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Group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왼쪽)은 지난 13일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가 관내 빗물펌프장 총 4곳(한남, 보광, 한강로, 문배)을 현장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추가 경정예산과 관련된 수방시설물 현황을 점검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문화반상회 본격 운영

강원 고성문화재단은 주민 주도 의견 수렴을 위한 '문화반상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참여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승인 후 반상회 회의록과 회의 사진을 제출하면 회의비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회의는 동일 주제로 세 번까지 가능하고 회의 주제, 시간과 장소, 모임 대상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며, 단순 친목 도모, 종교나 정치 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연간 100개의 의제가 만들어지고 그중 실현 가능한 제 5개를 연결해 대표적인 주민참여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 충남도, 당진 신에너지 벨류체인 구축... "수소산업 육성"

## 김태흠 지사, 당진 찾아 도민과 대화·정책현장방문 진행 당진항 물류환경 개선·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약속

충남도가 당진시 발전을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통한 신에너지 벨류체인 구축을 약속했다.

김태흠 지사는 15일 민선8기 2년차 시군 방문 열두번째 일정으로 당진시를 방문해 ▲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정책현장 방문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항 물류환경 개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당진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등에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선 아산국가산업단지 19만 3779㎡의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추가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달 포스코·LX그룹과 76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1조 2277억 원의 생산 유발과 426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여 명

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터미널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추진 중인 석문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와 연결해 신에너지 벨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당진 석문산업단지 수산단지 일원 12만㎡의 부지에 1123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수출 전략형 푸드테크 스마트 가공 공장 ▲광역 공공급식센터 ▲수출·창업·R&D 지원센터 ▲포플리먼트 물류시스템 등을 조성한다.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는 ICT·AI 등 첨단 기술 활용 양식시설 규모화를 위

해 석문산업단 내에 조성을 추진 중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설계비 30억 원이 기재부에 올라간 상태다.

당진시도 1호선은 도청~당진시를 연결하는 최단 노선으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면천IC에서 당진 시가지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한국교통연구원, 충남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 및 당진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방도 승격을 신청했다.

시민과의 대화에 이은 정책 현장 방문은 송산면 동곡리 358번지 일원 현대제철 수소공장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당진시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대제철 수소공장을 시찰했다.

김 지사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정 에너지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가 지난해 진행한 민선8기 첫 시·군 방문에서 당진 시민들은 29건의 사업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 중 8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 검토, 5건은 수용 곤란 과제로 남겼다.

충남취재본부/한성규기자 hnsng@jeonmae.co.kr  
당진/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원 양양군은 '2023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은 크루저요트·딩기요트·패들보드 체험, 랜드서핑 교육, 서핑강사 인증 교육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체험·이론·실습으로 이뤄졌다.

크루저요트·딩기요트·패들보드 체험은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요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랜드서핑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은 양양 서핑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서핑강습에 대한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서핑고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양양/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정선군, 제2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성료  
강원 정선군은 15일 정선공설운동장에서 제2회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청사초등학교와 빙그레빙그레봉사단 어르신들의 건강체조를 시작으로 신발걸림, 투호, 링던지기 등 어르신들이 참여해 쉽게 즐길 수 있는 6개 종목의 체육활동이 진행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며 건강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승준 군수는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모 대응 박차

충남 보령시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5일 시정 상황실에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모 대응을 위한 2차 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으며 후보지

회의를 개최한 이후 2만 범시민 서명운동, 기관·단체 홍보 활동, 복합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연구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소 이전 공모 일정으로는 오는 30일까지 연구소 유치 제안서를 접수 마감하며 7-8월에는 후보지 입지평가, 9-10월에는 지자체 서면 평가 및 후보지 현장답사

## 보령시, 2차 전담팀 회의 개최... 정보·동향 공유 "최종 발표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

결정에 따른 부서별 행정·재정·엔지니어링 부문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와 동향을 공유했다.

시는 연구소 이전 후보지 공모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상하수도, 도로, 각종 인허가, 도시계획, 폐광진흥지역 사업 지원 등 행정 공백 없이 연구소 유치 전략을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차 전담팀

를 진행한다. 최종 이전 결정지는 11~12월에 발표된다.

구기선 부시장은 "홍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중요시하고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이건영기자 keegy@jeonmae.co.kr

## 삼척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321억 투입

### 유수율 85% ↑ 달성·40억 절감 삶의 질·상수도 경영개선 기여

강원 삼척시는 321억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지방상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전 지역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블록구축공사, 긴급관망정비 등을 마무리했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 대상지의 목표 유수율인 8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동지역을 중심으로 배수관 13.3km, 급수관 21.1km 등 총 34.4km 구간

에 대해 관망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수 및 교통소음 등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문자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삼척/김홍식기자 kimhs@jeonmae.co.kr

26 전국매일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 행복이 머무는 곳!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삶이 풍요로운 도시, 인천건설협회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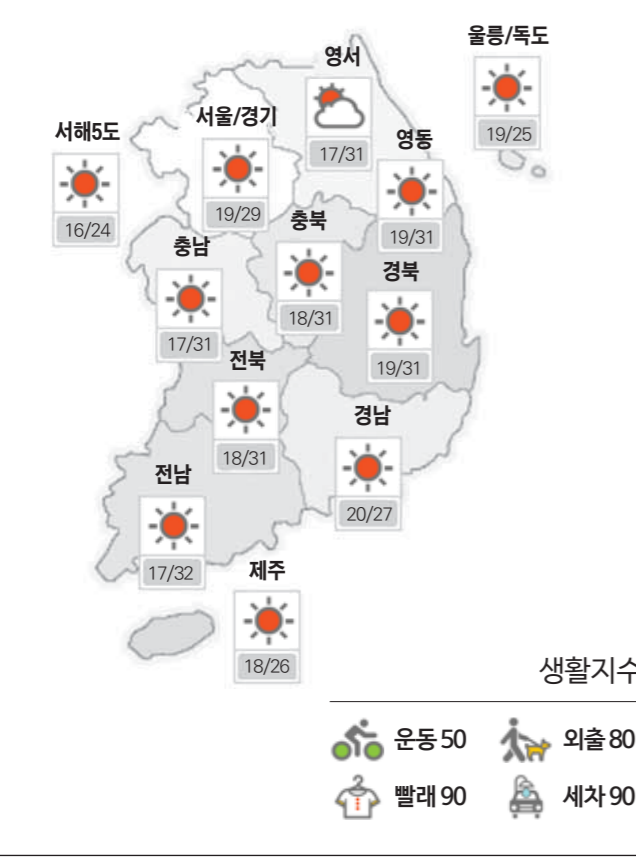
CAK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오늘의 날씨 내륙 낮최고 30도 넘어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부천시, 덕천 IC 램프 A·C 구간 공사 차량 전면 통제

부천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오는 23일까지 덕천 IC 램프 AC 구간...

김포시의회, 행감 관련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경기 김포시의회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 사업장...

아산시,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충남 아산시가 우기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

강원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강원 고성군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태안군, 각종 인구시책 성과 '톡톡'...귀어 '전국 최고'

충남 태안군 인구증가시책이 성과를 거두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가세로 태안군수가 귀농학교에서 귀농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

"GTX-B노선 갈매역 정차·6호선 구리 연장해야"

백현중 경기도의원 정례회서 주장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무정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막바지 개장 준비 '분주'

안전재단 등 본격 운영 1일 122명 투입 안전점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내달 1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경기특사경, 미인가 불법숙박업체 36곳 적발

오피스텔 25개소 최대. 피스텔 3개실, 파주시 B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북부지방산림청, 양평군 우기 대비 현미경점검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 양평군 일원 산림토목사업장 및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 내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이상무'

수자원연구, 24개 품종 분석 요오드 등 한건도 검출안대.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결과...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설립인가

교육서비스 등 사업단 3개 구성 원데이 체험 클래스 등 진행. 경기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

파주시 5000번 노선 공공버스 전환 확정

모집공고 등 거쳐 연내 운행 "광역교통 편의성 향상 기대". 경기 파주시 5000번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 국내 말라리아 환자 급증... 지난해 대비 3.3배 늘어

### 지난 10일까지 173명 발생... 따뜻한 날씨·일상회복 영향 질병청, 경기·인천·강원 감염위험 지역 신속진단검사 권고

최근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해외 유입 말라리아를 합쳐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환자는 173명으로, 지난해 동기 53명 대비 3.3배 수준이다. 발생현황으로는 국내 발생이 137명으로 작년보다 3배, 해외 유입이 36명으로 작년 대비 5.1배 급증했다. 올해 환자가 늘어난 것은 따뜻한 봄 날씨에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코로

나19 일상회복으로 작년보다 바깥 활동이나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환자 137명 중 군인이 21.9%였으며, 경기 67.2%, 인천 10.9%, 서울 10.2%, 강원 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말라리아 추정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강원(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환자의 경우 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유입됐다. 대부분이 열대열 말라리아

로,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예방과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위험지역에서 30일 이내에 2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거나, 거주기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에 '군집추정사례'로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 9건, 서울 1건의 군집추정사례가 나왔으며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나온 파주시와 김포시에 대해선 지난 1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경북지역에선 희망 주민에 대해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진단검사와 예방약을 제공한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선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위험지역 방문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지원기자 kwj9190@jeonmae.co.kr

## 사건·사고

### 타구단 유소년 선수 폭행한 감독 입건

타구단 유소년 선수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인천 한리틀야구단 감독이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A리틀야구단 감독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운동장 등에서 다른 C리틀야구단 선수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 및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야구단 학부모들은 A구단과 C구단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과정에서 B씨가 야구를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C구단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시민 갈취시도·폭행 후 도주 일당 검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나온 시민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도주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광주시에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B씨가 갖고 있던 현금 7천만 원이 든 가방을 뺏으려다가 실패하자 수차례 폭행한 뒤 도박타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으며 5명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 뺑소니 트럭에 치인 10대 숨져

물류 트럭이 1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 등 혐의로 40대 트럭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 산내교차로 편도 도로에서 10대 남성 B씨를 1t 물류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 개통하면 철회 못 한다?... 대법 "부당 제한"

### 한국소비자연맹, SKT·KT에 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대법 첫 판단

휴대전화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의 통로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KT와 S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된 이상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다"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개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황윤기기자



이글거리는 도로 15일 오후 광주 서구 내방로에서 시민들이 뜨거운 햇볕에 달아올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최남수기자

## 의사 탑승 '119구급헬기 서비스' 성과 나타나

### 지난 1월부터 4명 목숨 구해 24시간 출동부터 이송까지

최근 시범 시행중인 의사 탑승 119구급헬기 서비스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포천에서 70대 여성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식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급했던 환자는 의상외과 의사가 탄

소방헬기로 인계됐으며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면서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환자는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 탑승 119구급헬기 서비스는 24시간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를 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목숨을 구한 환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서비스에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

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전문의 등 20명의 인력자원이 참여하며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병원 간 전원이 필요할 때 헬기가 협력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2월 28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위독한 상황에서 소방응급의료헬기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다.

박문수기자 pms522@jeonmae.co.kr

**산청군농협 정육가공센터**  
 경남 산청군 금서면 천황로 2605번길 19  
 TEL 055-970-2731~3  
 인터넷 www.sc-blackpork.com

# 산청 지리산 흑돼지

SANCHEONG JIRISAN BLACK PORK

**· 흑돼지의 원조는 제주보다 산청!**

1900년대 후반, 경제성이 큰 개량종에게 밀리게 되면서 흑돼지의 개체 수가 감소하자 제주지역에서 산청으로부터 흑돼지 종자 채취 및 사육기술을 습득하여 재래종 보존사업을 하였습니다.

**· 지리산의 청정함을 담은 산청흑돼지**

해발 300m 공해요소 하나없는 계곡에서 건강하게 사육된 흑돼지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에서 가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청 지리산 흑돼지 순종 보유 (토착 재래종)

돼지 특유의 냄새가 없고 육질이 짙기며 육즙이 매우 풍부함

개량종과 달리 면역력이 강하여 무항생제 사육 가능

사료개선 연구 결과물인 활성탄과 알토를 첨가한 사료 공급

산청흑돼지 영농법인농장

산청군농협 정육가공센터

소비자



### 우리 입맛에도 맞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채소 - 공심채

#### 기고

#### 고 화 순

대한민국전통식품영인  
남양주시 하늘농가 대표



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의 국내 결혼이민여성  
과 이주노동자의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또 중  
국·동남아 음식을 내놓는 우리나라의 식당도  
늘었다. 여기에 태국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다시  
찾는 대표적인 채소가 됐다.

공심채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고온다습한 환  
경을 좋아해 물을 자주 주어야한다. 생육적온은  
25-32℃정도이다. 파종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  
순 사이에 한다. 다만 서리를 피할 수 있는 비닐  
하우스에서는 4월 상순에 파종한다. 줄기마디  
를 4-5마디가 되도록 20-30cm 정도 길이로 잘  
라서 삼목번식도 한다. 줄기는 2-3미터, 혹은 그  
이상으로 자란다. 줄기는 마늘종과 비슷한 한테  
단단하지 않다. 잎은 화살촉 모양에서 피침 모양  
으로 다양하며, 길이는 5-15cm, 넓이는 2-8cm  
이다. 줄기가 30-40cm정도 자랐을 때 밑동을 남  
기고 수확하면 남은 밑동이 자라나 5회 이상 수  
확할 수 있다. 잎은 미나리나 시금치와 같은 유  
사한 형태를 띠며 줄기속이 비어있는 것이 특징  
이다. 서리에 예민한 식물이므로, 수확 시기는 6  
월에서 서리가 내리기 이전까지다. 온실에서  
연중수확이 가능하다. 8월 하순이 되면 작은 나  
팔꽃 모양의 꽃이 개화한다.

공심채는 비타민 B1, B2, 섬유질 등의 미네랄  
이 풍부한 채소다. 신진대사와 혈압에 영향을 미  
치는 칼륨도 풍부해 더위를 해소하고 피로회복,  
기력회복, 빈혈예방에 도움을 준다. 칼슘도 많아  
성장기 어린이와 노년층의 뼈와 치아 건강에도  
좋다. 시금치보다 칼슘이 1.5배, 섬유질 3.5배 많  
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테르펜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백,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며 염증 예

방에도 좋다. 중국에선 이노제, 식중독, 대상포  
진에도 공심채가 사용된다. 공심채를 고를 때는  
누렇지 않고 파릇파릇한 색이 일, 줄기가 탄력적  
인 것을 골라야 한다. 공심채는 아삭한 식감에  
향이 강하지 않으며 어린 싹의 경우 성숙한 것보  
다 더 부드럽고 단맛을 갖는다. 볶음, 무침, 수프  
등으로 먹을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주로 마늘  
과 고추를 첨가하여 볶음으로 즐겨 먹는다. 보  
통 마늘, 굴소스, 피시 소스 정도만의 양념으로  
도 쉽게 공심채 볶음 나물을 만들 수 있다.

공심채 볶음 나물을 요리할 때는 흐르는 물  
에 씻으면서 일부 무른 잎은 떼어내어 손질한다.  
그리고 불에 식초 한 스푼 정도 넣은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 잘 헹궈준다. 나물은 볶아서 먹기  
좋게 7cm내외의 길이로 잘라준다. 먼저 후라이  
팬에 편 마늘, 페퍼론치노(작은매운고추)와 기  
름을 넉넉히 두르고 볶아준다. 마늘이 노릇해지  
면 공심채 줄기부분을 먼저 넣고 조금 후 남은  
잎을 마저 넣어 볶아 준다. 어느 정도 볶  
고 나서 굴소스, 피쉬소스, 포도씨유 등을 넣고 2  
분 정도 더 볶아 마무리 해주면 시금치 향의 부  
드러운 식감이 섞여 있는 정말 편안한 반찬이 된  
다.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소금 간으로 해도 좋  
고, 버섯·고기·새우 등 다른 식재료를 추가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기후변화와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증  
가, 다양한 식문화의 결합·확산에 따른 트렌드  
변화로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오늘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남아  
야 친구들과 공심채 볶음 나물로 향수를 달래주  
어주겠다.

### 한국사회 병 ‘긱발’

#### 데스크칼럼

#### 최 재 혁

지방부 국장



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선관위 공직자들이 심판자로서  
의 직업윤리를 깰까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면 공정한 심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가족  
이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통령 측근을 앉  
힌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나 지난해 대통령 선  
거에서 사전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보관한 사  
건, 최근에 불거진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  
도 논란 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  
태에서 말이다.

채용특혜 의혹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사건이다. 최고의 공익을  
추구해야 할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은 선거심  
판자로서의 선관위 위상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그렇기에 이번 채용비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  
은 엄중하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  
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와 메트릭스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노태우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  
다고 응답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중앙선관  
위원들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과감하게 물  
러나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관위가 환골탈  
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가 대대적인 혁  
신을 통해 공정한 심판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다면 선관위의 미래도, 우리 정치의 미래도, 더 나  
아가 국가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조선 초 정갑손(鄭甲孫)이라는 ‘대쪽 관리’가  
있었다.그 정갑손이 함길도 감사로 근무할 때 임  
금의 부름을 받았다. 함양을 다녀왔더니, 그 사이  
에 향시 합격자 방이 나붙어 있었다. 그런데 자신  
의 아들인 오(烏)의 이름도 ‘합격자 명단’에 있었  
다.그 순간 정갑손의 수염이 꼳꼳하게 치솟았다.  
정갑손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시험관을 혼냈다.“늘  
은 것이 감히 나에게 여우같이 아첨을 하는가. 내  
자식 오는 아직 학업이 정밀하지 못하네 어찌 요  
행으로 합격시켜 임금을 속인단 말인가.” 정갑손  
은 자기 손으로 아들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서  
지워버렸다. 시험관도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정  
갑손은 아들 오가 무능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  
시킨 게 아니었다. 오는 어렸을 때부터 툭툭했고  
학문도 열심이었다. 효성도 남달랐다.오는 자신  
을 불합격시킨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리  
고 나중에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했다. 오늘날 이  
런 대쪽이 있다면, ‘천연기념물’알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가진 자들  
의 도덕적 의무나 책임을 뜻하는 말로서 노블리  
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해야 할 가진 자들이 아  
빠 찬스를 쓰면 쓸수록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는  
무너지 것이며 국민들간의 이질감만 커질 것이  
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노블  
리스 오블리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진 자들의 도  
덕적 양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심채(空心菜)는 자리면서 줄기 속(心)이 비  
어(空) 있는 나물이다. 매꽃과의 1년생 초본으로  
잎채소다. 영어로는 Water Spinach(물시금치)  
라고 하는데 보통 모닝글로리로 더 잘 알려져  
다. 태국에서는 팟봉, 필리핀에선 강콩이라 부르  
다. 공심채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친환  
경 빨대로도 쓰이고 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의 김치처럼 많이 먹  
는다. 이들 나라에 여행 갔다가 식당에서 메뉴를  
물고 그릇지 모르겠으면 공심채를 주문하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먹어봐도 거부감 없고  
고기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공심채는 아시아는 물론 심지어 서구권에서  
도 꽤 유명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서는 그리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기지역  
에서 특수 재배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다. 이

Opinion 전국매일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투고, 사진, 민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 (우 1332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주신동, 예능빌딩 / 전화 1998-5752 / 팩스 02-758-4300 / 홈페이지 www.jeomae.co.kr

### 치아교정, 사전에 세밀한 계획 세워야

#### 의학칼럼

#### 송 창 호

대전 서울브라운치과 원장



치과를 찾는 게 중요하다. 구강 내 구조는 물론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 파악  
한 후 교정 계획을 세우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중 모르페우스3D 장비는 교정 후 달  
라지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교정 계획  
단계에서 활용하기 좋다. 교정을 하면 하관이  
달라 보일 수 있으며 돌출된 입이 들어가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므로 사전에 확인하면 안정  
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밀 기기로 검사한 후에는 개별적으로 다른  
부정교합 상태에 맞춰 세부적인 부분을 결정해  
야 한다. 전체적인 교정 기간이나 사용할 교정  
장치 등을 꼼꼼히 파악하고 적절한 교정장치  
를 선택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결정해야 한  
다. 또한 교정 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악셀  
런트 등의 장비를 활용해 교정기간을 단축하는  
게 좋으며, 외부적으로 교정장치가 드러나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면 클리피쉬, 설측, 투명 등  
심미성이 높은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전국의 영향력 있는 매거진

www.jeomae.co.kr

발행: 편집-전대민, 편집-박종문, 사설-박종필, 편집국장-이갑성

대표전화 1588-5762

정 치 부 031-755-5600 지 방 부 031-755-5622  
경 제 부 031-752-0256 광고문의 070-4325-3938  
사 회 부 031-755-3484 FAX 031-758-4360

전국취재본부

서울본부 02-749-0922 세종본부 044-865-8000  
인천본부 032-751-1478 강원본부 033-251-4866  
대구본부 053-471-1111 충남본부 041-668-3722  
광주본부 062-361-0145 충북본부 043-255-9877  
경기북부본부 031-967-1616 제주본부 064-723-1956  
경남본부 055-761-788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주신동, 예능빌딩

1997년 6월24일 창간(등록번호 가-43호(일간))  
본사등록사: 중국 요양일보사 조선문화  
구독료: 월 19,000원 / 부 7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한국 교육의 변화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필독서!

“북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삶을 위한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 놀라기만 하다.”

“이 책은 ‘교실 혁명’을 넘어서 교실이 없는 이야기학교의 이야기다.”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다

현장 냄새 가득합니다!  
13명의 교사가 함께 쓴 대안 교육 이야기!

북유럽식 삶의 교육의 가능성,  
이야기학교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북유럽식 삶의 교육 이야기학교  
장한섭 외 12인 지음  
신국판 | 240쪽 | 13,000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